

제 41 호 시험지 돌려주기

시험 시간이 끝나고 시험지를 걷는 순간부터 교수님의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충분히 소화해내고 이전보다 한 두 단계 높은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증거가 보이면 좋으련만, 그 반대로 설익은 음식을 먹고 토해내듯 한 시험지를 채점하다보면 점점 더 따분하고 지겹워 집니다. 가끔 신통한 답안지를 대하면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이없는 답을 볼 때에는 한심하다 못해 화가 치밀고, 평균 시험 점수가 낮으면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험지와 옥신각신해야만 하는 자신이 처량하게까지 느껴집니다. 대체로 시험지 채점하기를 즐거워하는 교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수”같은 시험지 채점하기를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하루,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일주일, 이 주일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큰일보고 밑 안 닦은 기분일 테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찝찝하고 짜증스럽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잘했거나 못했거나 시험 결과는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제때 되돌려 받지 못하면 학생들은 허공에 붕 떠있는 기분이 들어 신경만 잔뜩 쓰이고 새로운 내용을 강의해도 별로 마음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런 즉, 시험지는 가능한 다음 수업 시간까지 채점해서 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얻는 해방감!! 속이 후련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되는 장점 아래와 같은 여러 교육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1. 적시에 피드백 목적을 이룬다.

피드백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쇠가 달구어졌을 때 곧바로 식혀야 강해지듯 학생들도 시험 직후에 결과를 알려줘야 발전이 있습니다.

2. 시험을 일단락 짓는 역할을 해낸다.

긴 한 학기를 여러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배워야 할 내용을 한 학기 내내 질질 끄는 것보다, 한 단계 한 단계 끝을 맺는 맛이 있어야 학생들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3. 시험 결과로써 강의의 방향을 정해준다.

시험 결과에 따라 교수님께서 강의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진도를 나가는 대신 복습을 해야 할지, 좀 더 빠르게 진행해야 할지, 강도 높은 숙제를 좀 더 내줘야 할지, 퀴즈를 내어 학생들을 좀 더 조여야 할지, 오히려 느슨하게 해야 할지... 학생들의 수업 목표 달성도를 빨리 파악하실 수록 교수님께서 더 효과적인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지를 빨리 돌려주시는 교수님은 “학생을 배려하는“ 교수님으로 인식됩니다.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은 유능한 교수의 핵심특성 제 1번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시험지를 다음 수업 시간까지 되돌려주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강의평가 점수가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 조벽, 1999